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전남도선수단이 필승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 제공〉

스타들도 함께 뛴다...부산서 펼쳐지는 스포츠 열전

제106회 전국체전 17일 부산서 광파르...23일까지 '금빛 열전' 돌입



BUSAN 2025

전국 스포츠 선수들의 대 축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안드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한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82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태극전사들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대거 각 시·도 대표로 출전해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한다.

광주시선수단은 육상 등 50개 전 종목에 1천439명이 참가해 50회 연속 3만점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번 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은 광주시청 육상팀이 남자일반부 400m 계주에서 5연패에 도전하고, 지난해 전국체전 육상 4관왕 고승환과 독일 라인루트 하계U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재성

(이상 광주시청)이 '금빛 질주'를 예약했다.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웅태와 역도 순현호(이상 광주시청), 양궁 이승운(남구청)·김수린(광주시청)·오예진(광주여대)도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여자농구 강호 수퍼아여구가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등 농구, 핸드볼, 스쿼시 등 단체종목에서도 흥린 땀만큼 기량을 발휘해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

광주선수단은 사전경기로 치러진 펜싱에서 광주서구청 여자 예체 단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권수영 양지원(광주시체육회)이 여자일반부 짝편 100m 대회 2연패, 양현지(광주시체육회)가 표면 200m 금메달, 김지은(광주체고)이 여자U18 표면 50m 금메달, 태권도 여자대학부 김민경(조선대)이 -5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총 29개(금5, 은11, 동13)의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

광주, 광주시청 400m 계주 5연패 도전...양궁 오예진 '다관왕' 예약 전남, 우수 윤웅진 7연패, 순천시청 양궁·광양여고 축구 3연패 도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염원에 힘입어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 신청을 완료했다"며 "전국체전 유치 도전 도시에 걸맞게 부산 전국체전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겠다. 광주시체육회도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현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부산 전국체전 대회기간 동안 참가 시도 선수단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홍보를 전개해 AI 허브도시 광주를 알릴 예정이다.

전남도선수단은 총 49개 종목 179종별에서 1천 738명이 참가해 3만2천점대의 득점을 목표로 열전을 펼친다.

전남은 육상(남대, 여대), 탁구(남대, 여대), 하키(남일) 등 대학팀 창단과 일부 종목의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전남체육 도약을 향한 탄탄한

기초를 다졌다.

여기에 일부 기록종목(골프, 궁도, 볼링)과 득점종목이 큰 단체종목(배구, 소프트테니스, 축구, 핸드볼)이 기대이상 선전을 펼친다면 3만4천점대 이상의 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타들도 전남체육 선전에 힘을 보탠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정나은(화순군청), 한국 여자복싱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임예지(화순군청), 세단뛰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장우(장흥군청),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완(전남도청), 그리고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김민수·김나연, 임진수·임세빈(이상 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 등이 출전해 금빛 활약을 예고했다.

다연패에 도전하는 무대도 관심을 모은다. 우수 윤웅진(전남도청·산타50kg)은 7연패 도

전에 나서며, 순천시청 양궁부는 여자일반부 단체전 4연패를 노린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김민재(장사급)와 광양여고 축구부 역시 나란히 3연패에 도전한다.

전남선수단은 사전경기로 치러진 펜싱 여자일반부 예체 개인전에서 박소형(전남도청)의 첫 금메달에 이어 태권도 여자일반부 김잔디(삼성에스원)가 -67kg급에서 금메달을 보냈고, 카누 여자일반부 탁수진(전남도청)이 K1 200m 은메달, 당구 여자일반부 서서아(전남연맹)가 포켓10볼에서 은메달, 태권도 남자일반부 석준겸(고흥군청)과 여자일반부 김가현(한국가스공사)이 각각 은메달을 추가며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4개를 따내는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은 단순히 기량을 겨루는 무대가 아니라, 선수들의 도전과 특별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감동을 만들어내는 자리"라며 "전남 선수들이 보여줄 열정과 투혼이 전국 체육인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울산戰 필승...‘경우의 수’는 잊는다”

7위 광주FC, 18일 울산 원정
파이널A 운명 결린 마지막 승부
최소 무승부, 강원戰 결과 지켜봐야



GWANGJU FC

광주FC가 파이널A 진출이 걸린 운명의 일전에 사활을 건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 나은행 K리그 2025 33라운드 울산HDFC와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 이번 원정전은 광주의 올 시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다.

지난 4일 열린 마지막 홈경기에서 대구FC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광주는 11승 9무 12패(승점 42)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33라운드가 종료된 후 파이널A, B 그룹이 갈리는 가운데 광주는 6위 강원FC(승점 43) 경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광주가 파이널A에 오르기 위해서는 울산전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만일 광주가 울산을 잡고 승점 3점을 챙기고, 강원이 대구FC에 패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면 순위 역전이 가능하다.

광주가 울산에 비기며 승점 1점을 얻고 강원 이 대구에 패할 경우 광주의 파이널A 진출이 유력하다.

이 경우 두 구단의 승점은 동률이 되며 K리



헤이스



최경록



문민서

〈광주FC 제공〉

그 규정에 따라 다득점으로 순위가 갈린다. 올 시즌 34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30골을 넣고 있는 강원에게 4골 앞서 있기에 단 한 경기서 뒤 집기엔 버거운 격차다.

광주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뒤로 하고 울산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 역시 오로지 승리를 목표로 A매치 기간 짧은 휴식 후 울산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1일 영남대와의 연습 경기에서는 6대0 완승을 거두며 팀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특히 이민기, 김한길 등 부상 복귀 선수들이 골 맛을 봤고, 문민서, 안혁주, 최경록, 헤이스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이 득점을 올리며 감각을 되찾았다.

광주는 울산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최근 광주는 울산과 치른 2번의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뒀다. 특히 양 팀의 직전 맞대결인 지난 7월2일 코리아컵 8강전에선 광주가 조성권의 결승골을 통해 준결승에 진출하며 구단 역사상 첫 결승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파이널A 진출의 운명이 걸린 이번 맞대결에서 광주가 울산을 제압하고 팬들에게 값진 승리와 함께 파이널A 진출이라는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16일 열린 '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소연 감독 “GS칼텍스는 꼭 잡겠다”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팀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철 IBK기업은행 감독은 16일 열린 프로배구 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우승팀' 예상에서 목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기쁨과 부담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기업은행은 7명의 감독을 대상으로 한 우승 후보 투표에서 절반이 넘는 5표를 휩쓸었고, 한국도로공사도 2표를 얻었다.

김호철 감독이 지휘하는 기업은행은 지난 2024-2025시즌 4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시즌 종료 후 도로공사에서 '최리'(최고 리베로) 임명옥을 영입한 효과를 보며 지난 달 여수·농협컵(컵대회)에서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후보 투표에서 2표를 받은 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도 새 시즌 구호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제시한 뒤 "믿음 없이는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정했다"며 신뢰의 리

더심을 제시했다.

지난 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의 일 분인 사령탑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은 어떤 곤란한 상황이 와도 꺾이지 않는 '불요불굴'(不搖不屈)을 내세운 뒤 "죽은처럼 성장하는 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정관장 감독은 새 시즌 선수들과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을 승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한 뒤 "(아포지 스파이커) 이선우 선수가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 시즌 최하위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승리를 위해 도약하자는 의미로 'Step up to Win'의 구호를 내세운 뒤 "중요한 건 꺾이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장소연 감독은 "(아시아 쿼터) 시마무라 하루요 등 베테랑 선수들이 위기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시즌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만큼 GS칼텍스를 잡겠다"며 꼭 이기고 싶은 팀으로 GS칼텍스를 꼽았다.

/연합뉴스

안세영, 세계배드민턴연맹 선수위원 위촉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활동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BWF가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 다섯명을 선수위원회 새 위원으로 위

촉했다고 16일 밝혔다.

BWF 선수위원회는 선수들의 목소리가 스포츠 정책과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돕는 공식 자문기구다.

규정 및 규칙 개정, 선수 복지 향상, 국제 대

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BWF와 선수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신임 위원으로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을 비롯해 도하 하니(이집트), 지아 이판(중국), 데보라 질레(네덜란드), 푸살라 V. 신두(인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